

광주에 '창업 산실' 한국 MS 혁신허브 들어선다

'광주시·전남대·마이크로소프트·디모아' 혁신허브 설립 업무협약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역량 강화·해외진출 위한 창업 지원 공간

광주시가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MS) 탄생을 목표로 한국 MS와 손을 맞잡고 전폭적인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청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혁신허브' 설립을 위한 4자(광주시·전남대·한국마이크로소프트·주식회사 디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S혁신허브는 중소·중견 및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 공간이다.

혁신허브는 올해 말 전남대학교 'G&R HUB' 내

에 개소할 예정이며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및 교육 ▲글로벌 IT플랫폼 활용법, 해외 투자유치 방법 등 창업 성공경험 공유 ▲지역창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 ▲Microsoft 인증 파트너 및 솔루션 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나선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자원과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MS프로그램 및 플랫폼 지원,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및 스타트업 중심 육성, MS인증 파트너 및 솔루션 전문기업 발굴·육

성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총판 및 클라우드 전문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디모아는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및 기술개발 교육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 실현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창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혁신허브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인천과 부산, 강원에 이어 광주가 4번째다.

이홍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MC 부장은 "기술 발전에 맞춰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내 지속 성장이 이뤄질길 바란다"며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의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성공경험을 활용해 광주의 창업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혁신허브 구축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및 홍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창의 융합인재 양성과 창업보육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간 제공 및 교육 훈련, 공동세미나와 포럼 운영 등을 맡게 된다.

민정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MS혁신허브 유치는 전남대학교가 기업가형 대학으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학발 창업과 지역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혁신허브가 개소하면 누구나 글로벌 IT플랫폼 활용법, 해외 투자유치를 이끄는 방법 등

글로벌 기업의 창업 성공경험을 기존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및 교육 등도 가능해짐에 따라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태 광주시 투자선단과장은 "혁신허브가 창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광주시가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창업 성공 신화가 많이 만들어져 제2, 제3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광주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화폐 국비 지원 '0'...규모 줄어드나

전남 17개 시·군 할인을 줄이기로...광주는 대응책 유보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자, 국비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할인율 규모가 지자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비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상당수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액을 30~50% 정도 줄이고, 할인율도 10%에서 5~6%선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의존도가 광주는 66%(전체 지역화폐 예산액 1140억원), 전남은 89.8%(전체 예산액 637억원)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광주는 33.4%, 전남은 73.4% 등 각각 국비에 의존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내년 발행액 기준 1조 3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계획하고 있다.

10% 할인율 중 4% 수준의 지역화폐 국비 할인 지원액을 계산하면 528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전남은 내년 1조59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423억6000만원의 국비 지원(4% 할인

국비지원액)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각 지자체 대응책이 재정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 측이 각 지자체 대응책을 질의한 결과, 전남의 경우 목포·순천·나주·보성·장흥·해남·영암·무안·신안·곡성·고흥·함평·영광·장성·구례·진도·완도 등 17개 시·군이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할인율 축소, 확대 등 여부는 예산안 확정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선 장흥군은 발행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고, 할인율을 10%에서 6%로 축소할 방침이다. 진도군도 현행 절반 수준인 150억원으로 발행액을 축소하고 할인율도 5%로 낮춘다.

반면 발행액을 확대하면서도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었다. 광양은 현행 500억원의 3배인 1500억원으로 내년 발행액을 늘리고, 할인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도 발행액을 늘리겠다고 했고, 담양·강진·여수 등은 현행 수준의 발행액과 할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기술·사업·창업·투자 한마당' 개막
광주지역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창업, 투자 등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2 기사창투 한마당' 행사가 24일 오후 광주 북구 이노비즈센터에서 개막했다. 광주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역 업체에서 내놓은 상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장충모 전 LH 사장 권한대행이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는 보고서에서 "장 후보는 32년간 LH에 재직하면서 부동산 산업과 경영에서 체득한 전문 역량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업 조직 운영 및 경영 혁신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 형성과정에서 특히, LH 사장 권한대행 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퇴직 후 LH 대

학으로 이직한 점 등으로 도덕성과 준법성, 리더십 등은 미흡하고 해상풍력 등 전남도 핵심 현안과 소멸 위기의 전남 현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투명한 경영 등 도법적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만간 장 후보를 임기 3년의 개발공사 사장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담양·해남·영암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전남도, 30억원 지원...유기농산물 확대·품목 다양화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어려운 과일이나 채소 등을 전문적으로 키워내 판매하는 전문단지가 전남 도내 4개 시·군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순천시,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에 모두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나서 올해까지 모두 31개소에 110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가 비 이외의 친환

경 농산물 생산품목 확대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채소류 및 과수 생산과 유통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지 1ha 이상을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 및 채소를 생산하거나 생산 계획 중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시·군에서 사업 대상

자를 추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채소·과수의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 계획에 대해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와 학계 등 5명이 전문가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1개소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지원액을 개소당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